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기도

김영문 브루노 신부

마음 안에서 싸움
 갈등과 내적 혼란을 멈추려면
 우리보다 높으신 그분 앞에 나를 두고
 중재자 하느님을 인식해야 한다

몸을 피하여 그분 눈길에 숨고
 그분 손길에 마음도 두고 머무르면
 안전하고 고요하게
 희망이 오고 힘을 주신다

그분은 상처나 아픔보다
 더 깊이 영혼 안으로 잡아 이끄시니
 멈춰 선 곳에
 하늘빛과 평화 서서히 밝아 오리라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1/01/2025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0,300

현재 참가 인원- 91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유스티노

한평생 설교, 저술로 교회 수호
철학에 한계 느끼고 입교
로마서 참수형으로 순교

성인이자 교부이며 순교자였던 유스티노(Justinus, 100/11?~165)는 이른바 「평신도 신학자」였다. 2세기 호교 교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꼽히는 유스티노의 구도의 자세와 신앙의 열정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구도의 모범이었다고 할 만하다. 유스티노가 살았던 2세기는 선교활동으로 인해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장되던 시기였다.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 그리스도교 교회는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아프리카 등의 내륙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교가」들은 먼저 그리스도교를 사람들의 비방과 철학자들의 비판에서 보호하고, 하느님이 단 한 분 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됐음을 보여주면서 우상숭배와 다신교를 논박해야 했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성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개념으로 소개했다. 평신도 신학자 유스티노는 호교 교부로서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에 항의해 여러 권의 호교서를 저술함으로써 당시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교를 수호했다.

유스티노의 생애에 대해서는 에페소에서 유대인인 트리폰과 나는 대화를 적은 『트리폰과의 대화』에 묘사된 입교 과정과 그의 순교에 관한 보고, 에우세비오의 『교회사』와 에피파니우스의 작품에 나오는 진술 등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그는 팔레스티나의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플라비아 네아폴리스(Flavia Neapolis)에서 100~110년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이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의 성장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된 철학, 진리를 찾아 다니던 그는 당시 유행하던 철학 사조들에 몰두했다. 교부시대를 풍미하던 철학 사조에는 스토아 철학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 그리고 피타고라스 철학 등이 있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철학 사조들을 탐구하던 그는 마지막으로 플라톤 철학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날 가이사리아의 바닷가에서 한 노

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의 대화 중에서 인간의 모든 사상, 플라톤 사상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 비로소 그리스도교에 입교한다.

그는 『트리폰과의 대화』에서 이 순간을 회상함으로써 자신이 신앙에 귀의한 경위를 자세하게 알려준다.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뵈지 못했다. 그런데 내 영혼 안에 갑자기 섬광이 일어났고 나는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들에 대해 사랑을 느끼게 됐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 속으로 되새기면서 이 철학이야말로 참되고 유익하며 유일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모든 이가 나와 같은 체험을 하여 구세주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기를 바란다”(『트리폰과의 대화』 8).

유스티노가 그리스도교에 심취하게 된 이유는 또 있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태도에서 느끼게 된 깊은 감동이었다.

“플라톤 학파의 제자였을 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직면해서도 용감한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악이나 탐욕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됐다”(『제2호교론』 12).

마침내 130년 경 에페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유스티노는 이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로서가 아니라 참 진리에 매료돼 그 진리를 설파하고 전하는 설교가가 되어 평생을 봉헌된 삶을 산다. 그래서 그는 떠돌이 설교자의 표시로 철학자의 외투를 걸치고 다녔다. 생애의 말기를 로마에서 보낸 그는 이곳에서 많은 작품을 저술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단 세 편 뿐이다. 첫째와 둘째 호교서, 그리고 트리폰과의 대화를 담은 저술이 그것들이다.



2세기 호교론자들의 저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제1, 2 호교론은 각각 안토니오 피우스 황제와 원로원에 보낸 것이다.

『제1호교론』(Apologia prima)은 68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의 억울함과 부당성을 항의하고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상을 비교하면서 모든 이교도들이 참된 진리의 교회로 귀의할 것을 호소하며,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과 종교 예식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15장으로 된 『제2호교론』(Apologia secunda)은 특별히 웅변가 프론톤의 공격에 대한 답변으로 여겨지는데, 전권의 후편 또는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161년경 로마의 집정관 유니우스 루스티쿠스로부터 박해 받아 순교한 3명의 처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쓰여졌다.

『트리폰과의 대화』는 『호교론』이 이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쓴 호교서로 유대교 랍비인 트리폰과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바탕으로 155년에 편집된 저술이다. 142장으로 된 방대한 저서이나 불행하게도 머리말과 74장 대부분이 소실됐다.

유스티노는 말년에 로마에서 오래 머물며 설교와 저술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수호했다. 그러다가 165년 다른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유스티노가 신앙에 귀의하고 그 신앙을 증거해나가는 모습은 흡사 조선시대, 박해의 서술 속에서도 서학을 익히고 그 안에 있는 참진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애썼던 우리 신앙선조들을 연상케 한다.

공지 사항

1 축하드립니다

11/23(주일)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곁에서 항상 함께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미사 안내

11/27(목) 추수감사절에 미사는 오전 10:00에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사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 신앙 체험 수기 모집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해 시애틀 성당 신자 신앙 체험 수기를 게재하고자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량 : 2페이지(스페이스 포함 1400자/페이지 당), 사진 1장
- 마감 일자 : 11/30/2025
- 문의 : 편집 위원장 김현숙 (206)375-5959
kimhelen6909@gmail.com

4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11/23(주일)
- 음식 봉사 : Edmonds 구역
- 메뉴 : 돼지불고기, 오징어볶음

5 SHOEBOXES OF JOY

대건회에서는 2025년 성탄 프로젝트로 'Shoeboxes of Joy'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대건회에서 정성껏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Donation : 빈 신발 박스, 각종 용품 (청소, 생활, 위생 용품 등), 보존 식품류
- 장소 : 성당 사무실
- 문의 : 대건회장 우인영 요셉 (404)405-5574

6 성당 주방 재물 조사 및 사용 안내

성당 주방의 재물 조사를 진행합니다.

- *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당의 주방 기구 및 식기들이 있다면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 주방을 사용하실 때에는 성모회장님께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주방 사용 후에는 뒷정리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 즉시 쓰레기장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7 주차장 안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그룹 공부 신청

- 내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 대상 : 성경공부가 필요한 모든 청년, 영어권 포함
- 신청 :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하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Fpnl4ncbx1RI4iRzLnC1A_cWPpFZh-hmGuGfCAQIdM-MGA/viewform?usp=dialog



영 어 권
성서모임

Come join us as we dive into the Word of God! Schedule to be determined after registration.



scan to register!
timuel.com/cbmseattle2025

9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안내

성당의 쓰레기장 재활용 분리 수거장에는 비닐 쓰레기 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뚜껑은 반드시 꼭 닫혀 있어야 수거 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분리 수거함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사무 하 5,1-3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2독서..... 콜로 1,12-20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3,35-43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73	예물 준비 성가 : 77, 211	성체 성가 : 501, 178	파견 성가 : 76		
연중 제 33주일(11/16)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3명	61명	203명	144명	44명	485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티트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티트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불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항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합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 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들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화요일 (12/23/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2/20/25)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이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주교회의와 주교 평의회 메시지

기후 정의와 공동의 집을 위한 호소

생태적 회개와 변화, 그리고 잘못된 기후 해결책에 대한 거부

기후 위기는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문제 발생에 가장 책임이 적은 남반구 국가들이 가장 나쁜 결과를 마주한다. 연간 3천억 달러 지원 약속은 적응과 완화, 손실과 피해 벌충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미흡하다.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포함하여 부유한 북반구가 지고 있는 기후 부채(climate debt)는, 북반구가 과거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탄소 배출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남반구를 희생시켜 얻은 경제적 이윤에서 상당한 몫을 가져갔다는 것을 기초로 2050년에는 19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기업과 은행, 정부 구조를 통하여 2조 달러 가량이 해마다 남반구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북반구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환경 파괴를 멈추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계획들에 투자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특히 남반구의 취약한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데에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후 부채를 다루어야 하는 의무에는 재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있다. 북반구는 기후 위기를 초래한 자신의 역사적 현재적 책임을 인식하고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으로써 더 공정한 미래를 만들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기후 정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금 조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기금이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분명한 로드맵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기후 영향의 속도와 강도에 비하면 그 조치들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아직 탄소 배출을 의미 있게 절감하거나 최악의 결과를 막아드린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손실과 피해

의 심각성에 비하면 그 대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구조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데도, 정부 간 협상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최근 개최된 당사국 회의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내려진 결정은 그 이행을 보장할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는 이제까지 걸어 온 위험천만한 경로를 바꾸는 데에 필요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13)14)

3. 지구 온난화 부정론

기후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른바 “힘 있는 엘리트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38항)인 사회의 초부유층이 공개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 합의를 위하여 중요한 각국 정부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완화와 적응을 위한 충분한 조치의 부족은 이미 상당한 손실과 피해로 이어져 왔고, 현재의 평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요소들인 인간 생명이나 전통 문화 또는 생물 종과 같은 간접 비용이나 비경제적 손실은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이러한 손실을 측정하거나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이 부재한 가운데, 취약 국가들의 공동체와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단독으로 짊어지고 부채의 악순환으로 떠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곤 했다.

4. 하나의 교회로서 더욱 노력할 필요성

바로 이러한 중대한 상황 속에서 브라질에서 개최

될 당사국 총회는, 교회가 특히 남반구에서 그 예언자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사회-환경 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며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규탄하라는 역사적 소명을 나타낸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바이다.

「파리 협정」이라는 역사적 이정표의 10주년을 맞이하고 「찬미받으소서」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에서 영감을 받아, 그리고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해야 한다는 과학적 합의를 인식하여,15) 우리는 채굴주의, 기술 지배주의, 자연의 상품화에 기초한 현재의 개발 모델을 변화시키는 생태적 회개를 통한 평화를 호소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인다.

기후 붕괴의 엄청난 징후를 인식하며 우리는 그에 응답하여 생태적 회개와 기쁜 절제의 길을 식별할 것을 제안한다.

5. 생태적 회개와 행복한 절제를 향한 길: 식별하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빛나는 유산인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생태적 회개를 철저히 제안함으로써 계속 이 세상에 도전을 제기한다. 이 회칙은 기쁨에 찬 단순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 전반에 걸쳐 개인적, 공동체적, 문화적 변화와 가치 전환을 포함한다. 회칙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는 부족한 삶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삶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 행복하려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특정한 욕구들을 억제하는 법을 알고, 삶이 주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223항).



이 제안은 토착 민족들이 일컫는 ‘행복한 삶’(Buen Vivir)(「사랑하는 아마존」[Querida Amazonia], 8항)과도 깊이 일치한다. 이 행복한 삶은 그들이 “동료 순례자들과 이루는 친교와 자연 전체와 이루는 친교, 곧 삶의 풍요로움과 역사와 미래와 통합을 이루는 길”(주교시노드 범아마존 특별회의 「의안집」 [Instrumentum Laboris], 18항)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생태계와 이루는 평화와 조화 안에서 생산적이고 지지하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다. 행복한 삶은 연대, 상호 존중, 삶의 새로운 대안들을 증진하면서 축적과 편견의 논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관계망과 이루는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사회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교회 교도권과의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 소비주의에 대항하는 절제** : 부의 축적과 금융 경제와 군수 산업 투자를 제한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모든 이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지구를 파괴하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이다.

*** 생태적 회개를 위한 교육** :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 통합 생태론, 인권,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대중 연대 경제에 관한 사목적 교육적 계획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하고 지지적인 실천들을 장려하고, 새로운 세대들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보편적 형제애의 관계를 강화하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관상의 영적 경험을 증진한다.

*** 지역 공동체의 강화** : 공동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자기 땅에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식량, 에너지, 문화 주권 계획들을 장려한다.

*** 과학계와의 지속적 대화** :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근거 자료에 기반한 기후 행동이 꾸준히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지역적, 광역적, 세계적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학계와 협업하는 데에 전념한다.

*** 희망과 공동 돌봄의 서사 촉진** : 영성과 예술이 필수적 인권, 곧 지식과 기억과 윤리적 현신의 세

대 간 전승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흙 없이 걷는 이는 안전하게 걸어가지만 비뚤어진 길을 가는 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다”(잠언 10,9). 우리는 그에 따른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파괴와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부추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6. 지구를 파괴하고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는 누구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붕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어떤 효과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원유 추출로 얻는 이익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진보’와 ‘발전’의 개념을 화석 연료의 막대한 사용과 연관 짓는 인식을 뿌리 뽑는 것이다. 1.5℃를 향한 필수 조치로서 명확한 법규가 즉시 제정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며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점진적이지만 확고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화석 연료에서의 전환과 이와 관련된 신규 기반 시설 구축 중단에는 명확한 기한,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 지속 가능한 대안을 지향하는 경제를 주도하는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

화석 연료의 포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해와 채굴과 기후변화로 영향을 입은 남반구와 공동체들에게 진 생태적 도덕적 빚을 배상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200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담론은 일부 정부와 다자 기구가 장려하는 ‘녹색 경제’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녹색 경제 또는, 이른바 많은 저술가가 부르는 ‘시스템의 녹색화’는 자본주의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적 도구적 논리이다. 자연 보호와 환경 정책을 소수를 위한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제안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정치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는 가격 책정 곧 자연 전체에 가격을 매기는 일을 돕는 법적 장치의 고안을 포함하는데, 가격을 매기고 나면 자연은 시장의 법칙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그 법칙에 따라 거래될 수 있는 자산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주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기업과 규제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과 소외된 지역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녹색 경제는 자

본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진적 현대화로 나타나, 자본주의의 자기 조절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적 모순을 영속시킨다.

남반구 국가들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른바 ‘녹색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지배적 이해관계를 위한 담론의 전환을 이 ‘녹색 자본주의’에서 인식한다. 이러한 담론의 전환은 현재의 환경 붕괴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촉구하셨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듯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지니지 못하는 그런 논리를 극복하여야 한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56항).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만을 찾는 것은, 실제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세계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들을 숨기는 것”(「찬미받으소서」, 111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바탕으로, 당사국 총회의 맥락에서, 우리는 잘못된 기후 해결책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제안들에 도전한다.

*** 자연의 금융화** : 자연 공공재를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예를 들어 주요 오염자들이 ‘온실가스 배출권’(green credit)을 구매하는 한 계속해서 가스를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숲의 금융화,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 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사실상 생태계 착취나 다름없는 일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이주와 실항을 심화한다.

***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광업** : 배터리와 전기차와 같은 소위 ‘청정’ 기술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와 니켈과 같은 광물을 얻기 위한 경쟁은, 특히 남반구에서 영토를 황폐화시키고 공동체들을 희생시킨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듯, “리튬, 규소와 같이 기술에 필요한 천연자원들은 당연히 무한하지 않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종의 강박의 바탕이 되는 이념이다. 곧 온갖 상상을 뛰어넘어 인간의 힘을 키우려 하고, 이를 위하여 인간이 아닌 실재는 그저 인간의 힘을 키우는 데에 이용되는 자원일 뿐이라는 것이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2항).

(다음주에 계속)